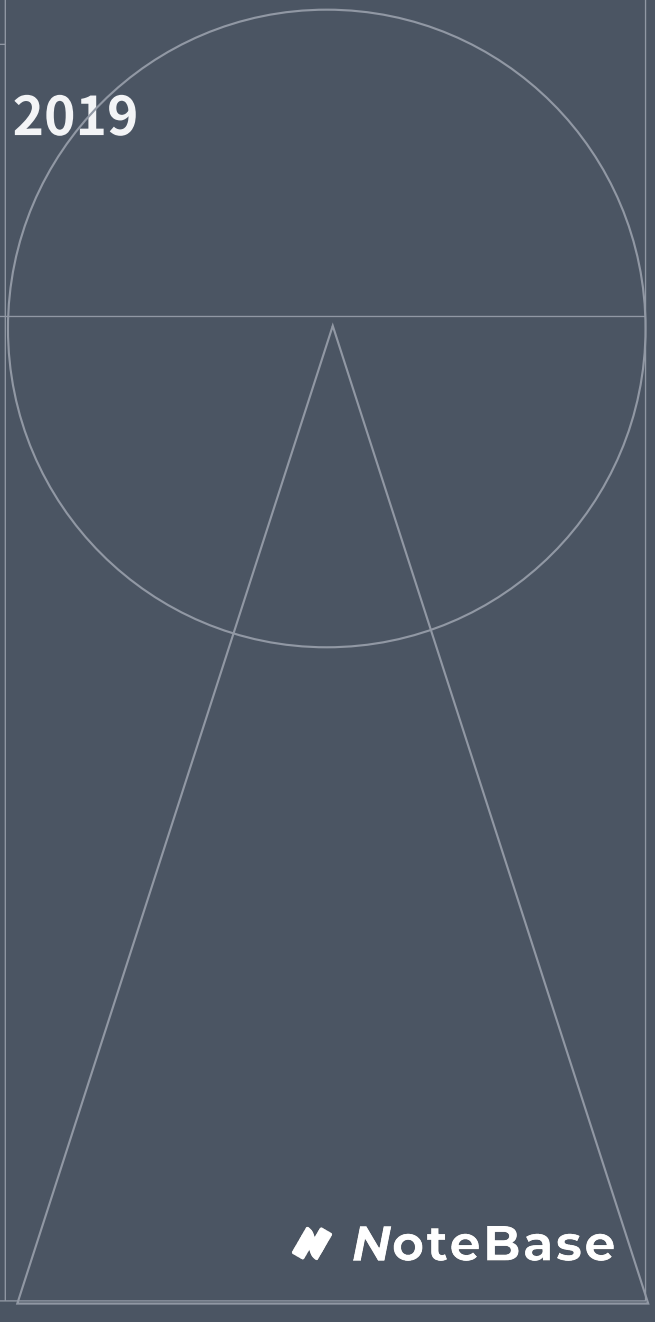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19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19

문 1.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다른 법이다.
◯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잘 ㉡크지 못한다.
◯ 남부 지방에 홍수가 ㉢나서 많은 수재민이 생겼다.
◯ 그 사람이 농담은 하지만 ㉣허튼 말은 하지 않는다.
◯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의 '크지'는 나무가 **자라다**라는 뜻이고, ㉢의 '나서'는 홍수가 **발생하다**라는 뜻이므로 둘 다 동사이다. '크다'는 문맥에 따라 품사가 달라지며, 이 문장에서는 크기가 큰 상태가 아니라 성장하는 변화를 나타낸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다른': 형용사 '다르다'의 관형사형이다. '서로 성격이 같지 않다'라는 뜻으로 **성격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뒤의 '법'을 꾸미지만, 관형사형으로 활용했다고 해서 품사가 관형사로 바뀌지는 않는다.

㉡ '크지': 동사 '크다'의 활용형이다. 여기서는 나무의 크기가 큰 상태가 아니라 **나무가 자라는 변화**를 뜻하므로 동사이다. 어간 '크-'에 연결 어미 '-지'가 붙어 뒤의 '못한다'와 함께 성장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 '나서': 동사 '나다'의 활용형이다. '홍수가 나다'의 '나다'는 **어떤 일이 발생하다**라는 뜻이다. 어간 '나-'에 연결 어미 '-아서'가 붙어 '나서'가 되었으며, 홍수의 발생이 수재민이 생긴 원인임을 나타낸다.

㉣ '허튼': 관형사이다. '쓸데없이 함부로 하는'이라는 뜻으로 뒤의 명사 '말'을 꾸민다. 형용사의 관형사형과 달리 **활용하지 않는 단어**이며, '허튼' 자체가 관형사이다.

㉤ '아닐까': 형용사 '아니다'의 활용형이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처럼 어떤 대상이 특정한 대상이나 성질에 해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어간 '아니-'에 어미 '-ㄹ까'가 붙은 형태이며, 의문형으로 쓰여도 품사는 형용사이다.

같은 품사인 ㉡과 ㉢은 모두 동사이므로 ②의 묶음과 일치한다. ①은 형용사와 동사, ③은 동사와 관형사, ④는 관형사와 형용사를 묶었다.

NoteBase

문 2. 다음의 여러 조건에 가장 잘 맞는 토론 논제는?

◯ 긍정 평서문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 쟁점이 하나여야 한다.
◯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징병제도는 유지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법을 개선할 수는 없다.
③ 야만적인 두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④ 내신 제도와 논술 시험을 개혁해야 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징병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하나의 쟁점을 긍정 평서문**으로 제시하며, 유지에 대한 찬반이 분명하다. 어느 한쪽에 유리한 정서적 표현도 없다.

선지별 해설

각 논제가 지문에 제시된 네 가지 구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① O: 징병제도의 유지라는 하나의 쟁점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긍정 평서문**으로 제시했다. 찬성 측은 유지를, 반대 측은 유지하지 않을 것을 주장할 수 있어 대립이 분명하다. 특정 입장을 감정적으로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표현도 없으므로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② X: '개선할 수는 없다'는 **부정 표현**이므로 긍정 평서문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법을 개선해야 한다'처럼 긍정 평서문으로 바꾸어 제시할 수 있다.

③ X: '야만적인'은 두발 제한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폐지에 찬성하는 쪽에 유리한 정서적 표현**이다. 이를 빼고 '두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로 제시해야 어느 한쪽에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④ X: 내신 제도의 개혁과 논술 시험의 개혁이라는 **두 쟁점**을 함께 제시했다. 한쪽의 개혁에는 찬성하면서 다른 쪽의 개혁에는 반대할 수 있으므로 찬반 입장을 하나로 정하기 어렵다. '내신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와 '논술 시험을 개혁해야 한다'를 각각 별개의 논제로 나누어야 한다.

NoteBase

문 3.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자: (관객들에게 무대와 등장인물을 설명한다.) 이곳은 황야입니다. 이리 떼의 내습을 알리는 망루가 세워져 있죠. 드높이 솟은 이 망루는 하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황혼, 초승달이 뜬 밤, 그리고 아침으로 변할 겁니다. 저기 위를 바라보십시오.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시커먼 그림자로만 보입니다.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파수꾼이었습니다.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합니다.

— 이강백, 「파수꾼」에서 —

① 공간적 배경은 망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이다.

② 시간적 배경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변한다.

③ 해설자는 무대 위의 아버지를 소개한다.

④ 파수꾼의 얼굴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해설자가 관객에게 소개하는 인물은 **망루 위의 파수꾼**이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으로 언급될 뿐, 무대 위의 인물로 소개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해설자가 '이곳은 황야입니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이리 떼의 내습을 알리는 망루가 세워져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공간적 배경은 **망루가 있는 황야**이다.

② O: 하늘이 연극의 진행에 따라 **황혼 → 초승달이 뜬 밤 → 아침**으로 변한다고 설명한다. 이 변화는 극 중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적 배경도 달라짐을 보여 준다.

③ X: 해설자는 '저기 위를 바라보십시오.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라고 하여 관객의 시선을 망루 위의 파수꾼으로 이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도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과거의 일을 설명할 때 언급된다. 따라서 '무대 위의 아버지'를 소개한다는 설명은 **'망루 위의 파수꾼'을 소개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파수꾼은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어 '언제나 시커먼 그림자로만 보입니다'라고 설명된다. 관객에게는 **그림자로만 보이므로** 얼굴의 구체적인 생김새를 분명히 알 수 없다.

NoteBase

문 4. 두 사람의 대화에 적용된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아닌 것은?

“수빈 씨, 나 처음 한 프레젠테이션인데 엉망이었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 봐.”
“너무 긴장해서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정아 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다.”

① 수빈은 정아의 말에 자신이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수빈은 정아가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③ 수빈은 정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아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주고 있다.
④ 수빈은 정아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수빈은 정아의 경험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지 않고, **정아의 입장에서 상황과 감정을 되짚어 주고 있다**.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일을 확인하고 처음 하는 발표라 많이 긴장했을 마음을 헤아린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수빈은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라고 정아가 한 말을 되짚는다. 정아가 말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반응으로, **상대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O: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 봐.'라는 말은 정아가 경험한 일을 더 이야기하도록 이끈다. 섣불리 평가하거나 조언하지 않고 **말을 이어 갈 기회**를 주어 대화를 격려한다.

③ O: 수빈은 '엉망이었어.'라는 정아의 반응에 대해, 처음 하는 발표라 '긴장을 많이 했나 보다.'라고 말한다. 상황과 연결하여 **정아가 느꼈을 감정을 말로 짚어 줌**으로써 정아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돌아보고 정리하도록 돕는다.

④ X: 수빈은 자신의 경험이나 처지를 대입해 정아의 말뜻을 바꾸지 않는다.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정아의 상황을 바탕으로 긴장했을 마음을 헤아린다. 따라서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말의 내용과 감정을 이해하고 되짚어 주는 것**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5. 국어의 주요한 음운 변동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때, '부엌일'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 유형으로 옳은 것은?

	변동 전		변동 후
㉠	XaY	→	XbY(교체)
㉡	XY	→	XaY(첨가)
㉢	XabY	→	XcY(축약)
㉣	XaY	→	XY(탈락)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부엌일'은 [부엉닐]로 발음한다. 받침 'ㅋ'이 'ㄱ'을 거쳐 'ㅇ'으로 바뀌는 것은 **교체**이고, '일' 앞에 없던 'ㄴ'이 더해지는 것은 **첨가**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교체: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부엌일'에서는 받침 'ㅋ'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ㄱ'으로 바뀌고, 이 'ㄱ'이 첨가된 'ㄴ' 앞에서 비음 'ㅇ'으로 바뀐다. 뒤의 변화는 비음화이며, 두 변화 모두 **음운 하나가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에 해당한다.

㉡ 첨가: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현상이다. '부엌일'은 '부엌'과 '일'이 결합한 합성어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로 시작하므로 **'ㄴ'이 첨가**되어 '일'이 [닐]로 발음된다. 이렇게 생긴 'ㄴ'이 앞 받침의 비음화를 일으켜 전체가 [부엉닐]로 발음된다.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이 되는 현상이다. '부엌일'에서는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변화가 없다**. 받침 'ㅋ'이 최종적으로 'ㅇ'이 되는 것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뀐 결과이다.

㉣ 탈락: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이다. '부엌일'의 받침 'ㅋ'은 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로 바뀌므로 **탈락이 아니다**. '일'의 'ㅇ'은 원래 자음 소리를 나타내지 않는 표기이므로, [닐]로 발음된다고 해서 'ㅇ'이 탈락한 것도 아니다.

'부엌일'에 나타나는 유형은 교체와 첨가이므로, ㉠과 ㉡을 묶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6.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사회자: 학교 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말씀해 주시죠.
찬성 측: 친구가 학교 폭력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학교 폭력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폭력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과 같습니다. 폭력을 직접 행사하는 행위뿐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반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죠.
반대 측: 특정 학생에게 폭력을 직접 행사해서 피해를 준 사실이 명백할 때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개입과 방관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달린 문제이므로 외부에서 규제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 측부터 찬성 측에 대해 반론해 주시지요.
반대 측: 과연 누구까지를 학교 폭력의 방관자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폭력을 목격했을 경우, 자신의 친구로부터 폭력에 관련된 소문을 접했을 경우 등 방관자라고 규정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려면 확고한 기준이 필요한데, 방관자의 범위부터 규정하기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성 측: 불의를 방관한 행위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후로도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불의를 모른 체하고 방관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사회 전체의 건전성과 도덕성을 떨어뜨릴 것이고, 정의에 근거한 시민의 고발정신까지 약화시킬 것입니다.

① 찬성 측은 친숙한 상황을 빗대어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 있다.

② 찬성 측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여 논지를 보충하고 있다.

③ 반대 측은 윤리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④ 반대 측은 논제에 의문을 제기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반대 측은 '누구까지를 학교 폭력의 방관자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며 **방관자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책임을 물을 대상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드러내어 방관자 처벌에 반대하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친숙한 다른 상황에 빗대는 방식은 두 상황의 유사성을 이용해 주장을 설명하는 것이다. 찬성 측은 다른 상황을 끌어와 비유하지 않고, **학교 폭력을 방관하는 행위 자체**를 묵시적 동의로 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X: 찬성 측은 방관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전하고, 방관에 책임을 묻지 않을 때 나타날 사회적 결과를 예상한다.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은 제시하지 않는다**. 개인적 체험으로 논지를 보충하는 대신 방관이 폭력의 확산과 사회의 도덕성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③ X: 반대 측은 직접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준 사실이 명백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개입과 방관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방관자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할 뿐, 윤리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불의에 저항해야 한다는 **정의와 도덕성의 가치를 내세우는 쪽은 찬성 측**이다.

④ O: 반대 측은 '과연 누구까지를 학교 폭력의 방관자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으로 **논제의 핵심 개념인 '방관자'의 범위**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어 우연히 폭력을 목격하거나 소문만 접한 경우를 들어 범위가 모호함을 설명한다. 처벌에는 확고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방관자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드러내어 반대 주장을 강화한다.

NoteBase

문 7.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한국 문학의 미적 범주에서 눈에 띄는 전통으로 풍자와 해학이 있다. 풍자와 해학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에서 나온 (㉠)을(를) 통해 드러난다. (㉠)은(는) '있어야 할 것'으로 행세해 온 관념을 부정하고, 현실적인 삶인 '있는 것'을 그대로 긍정한다. 이때 있어야 할 것을 깨뜨리는 것에 관심을 집중한 것이 (㉡)이고, 있는 것이 지닌 긍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이다.

① ㉠: 골계(滑稽), ㉡: 해학(諧謔), ㉢: 풍자(諷刺)

② ㉠: 해학(諧謔), ㉡: 풍자(諷刺), ㉢: 골계(滑稽)

③ ㉠: 풍자(諷刺), ㉡: 해학(諧謔), ㉢: 골계(滑稽)

④ ㉠: 골계(滑稽), ㉡: 풍자(諷刺), ㉢: 해학(諧謔)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풍자와 해학을 포괄하는 웃음의 미적 범주는 **골계**이다. 그중 거짓 권위나 관념을 깨뜨리는 비판에 무게를 두면 **풍자**, 현실의 삶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긍정에 무게를 두면 **해학**이다.

빈칸별 해설

㉠ 골계(滑稽): 우스꽝스러움이나 어긋남을 통해 웃음을 일으키는 미적 범주로, **풍자와 해학을 포괄**한다. 지문에서 풍자와 해학이 공통으로 드러나는 방식이자, 관념을 부정하고 현실의 삶을 긍정하는 상위 개념을 묻고 있으므로 골계가 들어간다.

㉡ 풍자(諷刺): 대상의 모순이나 부정적인 면을 웃음으로 드러내어 비판한다. 지문의 '있어야 할 것'은 마땅한 질서인 것처럼 행세해 온 관념을 가리킨다. 그 관념의 권위를 깨뜨리는 데 관심을 집중하므로, 여기서는 **부정과 비판에 무게를 두는** 풍자가 들어간다.

㉢ 해학(諧謔): 현실의 부족함이나 우스꽝스러움을 너그럽게 바라보며 웃음을 자아낸다. 지문의 '있는 것'은 현실적인 삶을 가리키며, 그것이 지닌 긍정에 관심을 집중한다는 말은 삶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한다. 따라서 **현실의 삶에 대한 긍정과 포용**에 무게를 두는 해학이 들어간다.

㉠ 골계, ㉡ 풍자, ㉢ 해학의 대응은 ④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8. 다음 글에서 <보기>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보기>
아침기도는 간략한 아침 뉴스로, 저녁기도는 저녁 종합 뉴스로 바뀌었다.

철학자 헤겔이 주장했듯이,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자 권위의 시금석으로서의 종교를 뉴스가 대체할 때 사회는 근대화된다. 선진 경제에서 뉴스는 이제 최소한 예전에 신앙이 누리던 것과 동등한 권력의 지위를 차지한다. 뉴스 타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 (㉠) 뉴스는 우리가 한때 신앙심을 품었을 때와 똑같은 공손한 마음을 간직하고 접근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 우리 역시 뉴스에서 계시를 얻기 바란다. (㉢)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한지 알기를 바라고, 고통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존재의 이치가 펼쳐지는 광경을 이해하길 희망한다. (㉣) 그리고 이 의식에 참여하길 거부하는 경우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보기>의 아침기도·저녁기도와 아침 뉴스·저녁 뉴스의 대응은 **교회의 시간 규범을 뉴스가 따른다**는 말의 구체적인 예이다. 이 예를 제시한 뒤 뉴스에 접근하는 태도의 유사성으로 넘어가면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NoteBase

핵심 풀이

<보기>는 아침기도가 아침 뉴스로, 저녁기도가 저녁 종합 뉴스로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기도와 뉴스가 **하루 중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통해 종교를 대신하게 된 뉴스의 모습을 보여 준다.

㉠ 앞의 '뉴스 타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는 문장은 시간 측면의 공통점을 제시한다. <보기>를 ㉠에 넣으면 **시간 규범에 관한 진술 → 아침·저녁의 구체적인 예**로 이어진다. 그다음 문장은 '공손한 마음'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시간의 유사성에 이어 뉴스를 대하는 태도의 유사성을 설명한다. '요구하기도 한다'도 이러한 특성의 추가와 어울린다.

㉡에서는 뉴스가 공손한 태도를 요구한다는 내용에서 '우리 역시' 뉴스에 계시를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 뒤의 선악·고통·존재의 이치에 관한 기대는 앞 문장의 **'계시를 얻기 바란다'를 구체화**한다. 두 위치에 <보기>를 넣으면 각각 이어지는 내용 사이에 시간대에 관한 예가 끼어든다.

㉣ 뒤의 '이 의식'은 앞에서 설명한, 종교적 의식처럼 뉴스를 접하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 <보기>를 넣으면 계시를 구하는 행위에서 그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로 이어지는 흐름 사이에 시간 규범의 예가 놓인다. 시간에 관한 설명 바로 뒤인 ㉠에 둘 때 예시와 설명의 관계가 가장 분명하다.

NoteBase

문 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헌 먼덕[1])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풍채 적은 형용에 ㉠개 짖을 뿐이로다
와실(蝸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었으랴
북창(北窓)을 비겨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戴勝)[2])은 이내 한을 돋우도다
종조(終朝) 추창(惆悵)[3])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리나다
세정(世情)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도다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에서 —

※ 1) 먼덕: 짚으로 만든 모자
2) 대승(戴勝): 오디새
3) 추창(惆悵): 슬퍼하는 모습

① ㉠은 실재하는 존재물이고, ㉡은 상상적 허구물이다.
② ㉠은 화자의 절망을 나타내고, ㉡은 화자의 희망을 나타낸다.
③ ㉠은 화자의 내면을 상징하고, ㉡은 화자의 외양을 상징한다.
④ ㉠은 화자의 초라함을 부각시키고, ㉡은 화자의 수심을 깊게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헌 모자와 해진 짚신을 신고 돌아오는 화자에게 개가 짖는 장면은 **초라한 처지**를 부각한다. 대승은 '이내 한을 돋우도다'라는 표현처럼 **화자의 수심을 깊게 하는** 존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의 개와 ㉡의 대승은 **둘 다 작품 속 현실에 등장하는 동물**이다. 주석에서도 대승을 오디새라고 풀이한다. 대승이 화자의 한을 돋운다고 표현한 것은 새를 대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 것이며, 대승이 상상 속 허구물이라는 뜻은 아니다.

② X: 개가 짖는 장면은 헌 모자와 해진 짚신 차림으로 돌아온 화자의 초라한 처지를 부각한다. 대승은 '무정한' 존재로 불리며 '이내 한을 돋우도다'라고 서술되므로, 희망을 나타내기보다 **한과 슬픔을 더하는 존재**이다.

③ X: 개는 '풍채 적은 형용'이라는 화자의 볼품없는 모습과 연결되므로 **초라한 외적 처지**를 부각한다. 대승은 '이내 한'을 돋우므로 **내면의 슬픔**과 연결된다. 개가 내면을, 대승이 외양을 상징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문맥에 맞지 않는다.

④ O: '헌 먼덕', '축 없는 짚신', '풍채 적은 형용'은 화자의 남루한 차림과 볼품없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 모습에 개가 짖는 장면이 이어져 **화자의 초라함**이 더욱 두드러진다. 한편 대승이 '이내 한을 돋우도다'라는 표현은 새의 울음이 화자의 한을 자극하여 **수심을 깊게 함**을 직접 보여 준다.

NoteBase

문 10. 화자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 성어는?

미인이 잠에서 깨어 새 단장을 하는데
향기로운 비단, 보배 띠에 원앙이 수놓였네
겹발을 비스듬히 걷으니 비취새가 보이는데
게으르게 은 아쟁을 안고 봉황곡을 연주하네
금 재갈, 꾸민 안장은 어디로 떠났는가?
다정한 앵무새는 창가에서 지저귀네
풀섶에 놀던 나비는 뜰 밖으로 사라지고
꽃잎에 가리운 거미줄은 난간 너머에서 춤추네
뉘 집의 연못가에서 풍악 소리 울리는가?
달빛은 금 술잔에 담긴 좋은 술을 비추네
시름겨운 이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는데
새벽에 일어나니 비단 수건에 눈물이 흥건하네
— 허난설헌, 「사시사(四時詞)」에서 —

① 琴瑟之樂
② 輾轉不寐
③ 錦衣夜行
④ 麥秀之嘆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시름겨운 이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는데'라는 구절에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난다. 이를 나타내는 한자 성어가 '전전불매(輾轉不寐)'이다.

공통 해설

전전불매(輾轉不寐)는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전전(輾轉)'은 몸을 뒤척이는 모습을, '불매(不寐)'는 잠을 자지 못함을 나타내며, **근심이나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한다.

시에서는 '시름겨운 이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는데'라고 하여 외로움과 시름으로 잠들지 못하는 모습을 직접 제시한다. 이어 '비단 수건에 눈물이 흥건하네'라는 구절은 그 슬픔을 드러낸다. 따라서 화자의 상황에 대응하는 표현은 전전불매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국어의 높임법에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법,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등이 있다. 이러한 높임 표현은 한 문장에서 복합적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 )의 경우 대화의 상대, 서술어의 주체, 서술어의 객체를 모두 높인 표현이다.

①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댁에 들어가셨다.

②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③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께 이 김치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④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하셨습니다'의 '-습니다'는 듣는 이를, '께서'와 '-시-'는 주체인 어머니를 높인다. '아주머니께'와 '드리다'는 김치를 받는 아주머니를 높이므로 **상대·주체·객체 높임이 모두 실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상대 높임은 듣는 이를, 주체 높임은 서술어의 주체를, 객체 높임은 서술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각 문장에서 세 높임이 모두 실현되는지를 살핀다.

① X: '아버지께서'의 '께서'와 '들어가셨다'의 '-시-'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인다. '모시고'는 '데리고' 대신 쓰인 높임 표현으로, 행위의 대상인 할머니를 높인다. 그러나 종결 어미 '-다'는 해라체이므로 **듣는 이를 높이는 표현은 없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이 실현된 문장이다.

② X: '될까요?'의 '-요'는 듣는 이를 높이는 상대 높임 표현이다. '어머니께'의 '께'와 '말씀을 드리다'는 말을 듣는 대상인 어머니를 높이므로 객체 높임이 실현된다. 하지만 서술어 '드리면'의 주체는 말하는 이 자신인 '저'이고, **주체를 높이는 표현은 없다**. '제'는 자신을 낮추는 말이지 주체를 높이는 말이 아니다.

③ O: '하셨습니다'의 종결 어미 '-습니다'는 듣는 이를 높이는 상대 높임 표현이다. '어머니께서'의 '께서'와 '하셨습니다'의 '-시-'는 '하시다'의 주체인 어머니를 높인다. '아주머니께'의 '께'와 '드리다'는 김치를 받는 대상인 아주머니를 높인다. 따라서 **듣는 이·주체인 어머니·객체인 아주머니**가 모두 높임의 대상이다.

④ X: '주민 여러분께서는'의 '께서'와 '주시기'의 '-시-'는 귀를 기울이는 주체인 주민 여러분을 높인다. '바랍니다'의 종결 어미 '-ㅂ니다'는 듣는 이를 높인다. 여기서는 주민 여러분이 듣는 이이면서 행위의 주체이므로 상대 높임과 주체 높임이 함께 실현된다. 그러나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표현은 없다**. '제 이야기'의 '제'는 말하는 이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리워진 안개를 걷게 하라,
국경이며 탑이며 어용학(御用學)의 울타리며
죽 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 넣라.

하여 하늘을 흐르는 날새처럼
한 세상 한 바람 한 햇빛 속에,
만 가지와 만 노래를 한 가지로 흐르게 하라.

보다 큰 집단은 보다 큰 체계를 건축하고,
보다 큰 체계는 보다 큰 악을 양조(釀造)한다.

조직은 형식을 강요하고
형식은 위조품을 모집한다.

하여, 전통은 궁궐안의 상전이 되고
조작된 권위는 주위를 침식한다.

국경이며 탑이며 일만년 울타리며
죽 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 넣라.

— 신동엽,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에서 —

① 직설적인 어조로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②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고 있다.
③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④ 농기구의 상징을 통해 체제 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이 시는 '전통'과 '조작된 권위'를 비판하며, **기존의 억압적 질서를 허물어** 자유로운 세상을 이루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따라서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 희망을 추구한다는 설명은 시의 지향과 어긋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걷게 하라', '흐르게 하라'와 같은 명령형 표현으로 변화를 요구한다. 또한 '보다 큰 체계는 보다 큰 악을 양조한다'고 단정하여 체계의 폐해를 비판하므로, **직설적인 어조**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② X: '전통은 궁궐안의 상전이 되고', '조작된 권위는 주위를 침식한다'에서 전통과 권위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화자는 이러한 질서를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국경과 울타리를 밀어 버리고 '한 세상 한 바람 한 햇빛 속에' 함께하는 세계를 지향한다. 따라서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가 아니라 **기존의 억압적 질서를 타파하여** 새로운 희망을 추구한다고 해야 한다.

③ O: '국경', '탑', '울타리', '조직', '형식'은 인간이 만든 경계와 제도를 나타내며, 분리와 억압의 의미를 띤다. 반면 '하늘을 흐르는 날새', '바람', '햇빛'은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세계를 보여 준다. 이처럼 **인위적인 억압과 자연적인 자유**가 대조된다.

④ O: '가래'는 흙을 파거나 떠 옮길 때 쓰는 농기구이다. 시에서는 국경과 탑, 울타리를 가래로 밀어 버리라고 하여, 농기구에 **억압적 체제를 허무는 변혁의 도구**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기존 체제의 개혁을 강하게 주장한다.

NoteBase

문 13. ㉠~㉣ 중 서술자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때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군노가 오는지 모르고 주야로 도련님을 생각하여 우는데, ㉠생각지 못할 우환을 당하려 하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는가. 한때나마 빈방살이 할 계집아이라 목소리에 청승이 끼어 자연히 슬픈 애원성이 되니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인들 아니 상할 것인가.
임 그리워 서러운 마음 밥맛없어 밥 못 먹고 불안한 잠자리에 잠 못 자고 도련님 생각으로 상처가 쌓여 피골이 상접하고 양기가 쇠진하여 진양조 울음이 되어 노래를 부른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임을 따라 갈까 보다. 천 리라도 갈까 보다. 만 리라도 갈까 보다. 바람도 쉬어 넘고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라매도 쉬어 넘는 높은 고개 동선령 고개라도 임이 와 날 찾으면 신발 벗어 손에 들고 아니 쉬고 달려가리.
㉢한양 계신 우리 낭군 나와 같이 그리워하는가, 무정하여 아주 잊고 나의 사랑 옮겨다가 다른 임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한참을 서럽게 울 때 사령 등이 춘향의 슬픈 목소리를 들으니 목석이라도 어찌 감동을 받지 않겠는가?
봄눈 녹듯 온몸에 맥이 탁 풀렸다.
— 작자 미상, 「춘향전」에서 —

① ㉠
② ㉡
③ ㉢
④ ㉣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의 '우리 낭군', '나'는 **춘향 자신을 기준으로 한 표현**이다. 임도 자신을 그리워하는지, 다른 임을 사랑하는지 묻는 말에는 춘향의 그리움과 불안이 드러나며 서술자의 논평은 나타나지 않는다.

NoteBase

공통 해설

서술자의 개입은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의 행동을 전하면서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을 덧붙이는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의문문의 형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서술자의 논평인지 인물 자신의 말인지 구별해야 한다.

㉣에서는 춘향이 이몽룡을 '우리 낭군'이라 부르고 자신을 '나'라고 하면서, 임이 자신을 그리워하는지 아니면 다른 임을 사랑하는지 묻는다. 이는 **춘향 자신의 그리움과 불안을 드러내는 말**이며, 서술자가 춘향의 처지에 대해 평가하는 말이 아니다.

반면 ㉠·㉡·㉤에는 서술자의 판단이 드러난다. ㉠은 우환을 당할 춘향의 목소리가 평온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슬픔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인다. ㉡은 춘향의 울음을 보고 듣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고 하여 연민을 드러낸다. ㉤은 감정이 없는 목석조차 감동할 것이라고 과장하여 춘향의 슬픈 목소리가 주는 감동을 강조한다. 이들은 모두 **서술자가 춘향의 슬픔에 공감하며 덧붙인 논평**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네 사람들이 방앗간의 터진 두 면을 둘러쌌다. 그리고 방앗간 속을 들여다보았다. 과연 어둠 속에 움직이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게 어둠 속에서도 흰 짐승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분명히 그놈의 신둥이개다. 동네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죄어들었다. 점점 뒤로 움직여 쫓기는 짐승의 어느 한 부분에 불이 켜졌다. 저게 산개의 눈이다. 동네 사람들은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속에서 간난이 할아버지도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한 걸음 더 죄어들었다. 눈앞의 새파란 불이 빠져나갈 틈을 엿보듯이 휙 한 바퀴 돌았다. 별나게 새파란 불이었다. 문득 간난이 할아버지는 이런 새파란 불이란 눈앞에 있는 신둥이개 한 마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럿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합쳐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신둥이개의 뱃속에 든 새끼의 몫까지 합쳐진 것이라는. 그러자 간난이 할아버지의 가슴속을 흘러 지나가는 게 있었다. 짐승이라도 새끼 밴 것을 차마?

이때에 누구의 입에선가, 때레라! 하는 고함 소리가 나왔다. 다음 순간 간난이 할아버지의 양옆 사람들이 욱 개를 향해 달려들며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와 동시에 간난이 할아버지는 푸른 불꽃이 자기 다리 곁을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뒤이어 누구의 입에선가, 누가 빈틈을 냈어? 하는 흥분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저마다, 거 누구야? 거 누구야? 하고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 속에 간난이 할아버지 턱밑으로 디미는 얼굴이 있어,

"아즈반이웨다레"

하는 것은 동장네 절가였다.

— 황순원, 『목넘이 마을의 개』에서 —

① 토속적이면서도 억센 삶의 현장을 그리고 있다.
② 신둥이의 새파란 불은 생의 욕구를 암시한다.
③ 간난이 할아버지에게서 생명에 대한 외경을 느낄 수 있다.
④ 동장네 절가는 간난이 할아버지의 행동에 동조하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동장네 절가는 간난이 할아버지의 턱밑에 얼굴을 들이밀며 개가 빠져나갈 틈을 낸 사람으로 그를 지목한다. 이는 할아버지의 행동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탓하는 태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방앗간이라는 마을의 생활 공간과 '아즈반이웨다레' 같은 사투리가 **토속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사람들이 몽둥이를 쥐고 개를 몰아붙이며 내리치는 모습에서는 거칠고 억센 삶의 현장이 드러난다.

② O: '새파란 불'은 쫓기는 신둥이개의 눈빛이다. 개가 빠져나갈 틈을 엿보는 모습에서 **살아남으려는 강한 욕구**를 읽을 수 있다. 할아버지가 그 불빛에 뱃속 새끼의 몫까지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어미와 새끼들의 생명력을 함께 부각한다.

③ O: 간난이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몽둥이를 쥐지만, 신둥이개가 품은 새끼들을 떠올리며 '짐승이라도 새끼 밴 것을 차마?'라고 생각한다. 이는 짐승의 생명도 함부로 해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과 경외감**을 드러낸다.

④ X: 개가 달아난 뒤 사람들은 누가 빈틈을 냈느냐며 못마땅해한다. 이때 동장네 절가는 할아버지의 턱밑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아즈반이웨다레'라고 하여 그를 지목한다. 따라서 절가는 할아버지의 행동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개를 놓친 책임을 할아버지에게 묻고 있다**.

NoteBase

문 15. (가)와 (나)를 통해서 추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가) 찬성공 형제께서 정경부인의 상(喪)을 당하였다. 부윤공의 부인 이 씨가 우연히 언문 소설을 읽다가 그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 찬성공이 기뻐하지 않으며 제수를 계단 아래에 서게 하고, “부녀자의 무식을 심하게 책망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예의에 어긋난 책을 소리 내어 읽어서 스스로 평민과 같아지려 할 수 있는가?” 하고 꾸짖었다.
(나) 전기수: 늙은이가 동문 밖에 살면서 입으로 언문 소설을 읽었는데,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귀전』과 같은 전기소설이었다. … 잘 읽었기 때문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빙 둘러섰다. 가장 재미있고 긴요하여 매우 들을 만한 구절에 이르면 갑자기 침묵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투어 돈을 던졌다. 이를 바로 ‘요전법(돈을 요구하는 법)’이라 한다.

① 상층 남성들은 상중의 예법에 대해 매우 엄격하였다.

② 혼자 소설을 보면서 소리 내어 읽기도 하였다.

③ 하층에서도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이 많았다.

④ 상층이 아닌 하층에서도 소설을 즐겼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두 글에는 소설을 읽거나 듣는 **향유 모습**이 나타나지만, **소설을 누가 얼마나 창작했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층이 소설을 즐겼다는 사실만으로 하층의 소설 창작자가 많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에서 찬성공은 상중에 소설을 소리 내어 읽은 제수를 계단 아래에 세워 꾸짖는다. 특히 '어찌 상중에 있으면서'라고 책망하는 데서 상층 남성이 **상중의 예법을 엄격하게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

② O: (가)의 이 씨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낭독한 것이 아니라, 소설을 읽던 중 그 소리가 밖으로 들린다. 이 장면에서 **개인적으로 소설을 읽을 때도 소리를 내는 방식**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③ X: (가)는 이 씨가 소설을 읽는 모습, (나)는 전기수가 기존 소설을 읽어 주고 사람들이 듣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소설의 향유에 관한 근거이지 **창작자의 신분이나 수에 관한 근거는 아니다**. 따라서 하층에서도 소설을 즐겼다고는 추정할 수 있지만, 하층의 소설 창작자가 많았다고까지 추정하기는 어렵다.

④ O: (가)의 찬성공은 소설을 소리 내어 읽는 행위를 두고 '스스로 평민과 같아지려' 한다고 꾸짖는다. 이는 **평민도 소설을 즐겼음**을 짐작하게 한다. (나)에서 사람들이 전기수 주위에 모여 돈을 내면서까지 다음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 모습도 소설이 대중적으로 향유되었음을 뒷받침한다.

NoteBase

문 16. 다음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고전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서양 음악의 뿌리는 종교 음악에서 비롯되었다. 바로크 시대까지는 음악이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음악가들 또한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다. 고전파는 이렇게 종교에 예속되었던 음악을, 음악을 위한 음악으로 정립하려는 예술 운동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신을 위한 음악에서 탈피해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하고 균형 잡힌 절대 음악을 추구하였다. 즉 '신'보다는 '사람'을 위한 음악, '음악'을 위한 음악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 준 것이다.
또한 고전파 음악은 음악적 형식과 내용의 완숙을 이룬 음악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음악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이때에는 성악이 아닌 기악만으로도 음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교향곡의 기본을 이루는 소나타 형식이 완성되었다. 특히 옛 그리스나 로마 때처럼 보다 정돈된 형식을 가진 음악을 해 보자고 주장하였기에 '옛것에서 배우자는 의미의 고전'과 '청정하고 우아하며 흐림 없음, 최고의 예술적 경지에 다다름으로서의 고전'을 모두 지향하게 되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고전파 음악은 종교의 영역에서 음악 자체의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음악적 내용과 형식을 수립하였다. 고전파 음악이 서양 전통 음악 전체를 대표하게 된 것은 고전파 음악이 이룩한 역사적인 성과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고전 음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파 음악의 성격과 특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① 고전파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의의를 밝힌다.
② 고전파 음악의 음악가를 예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③ 고전파 음악의 특징이 형식과 내용의 분리에 있음을 강조한다.
④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글에서는 고전파 음악이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했으며, 음악적 형식과 내용의 완숙을 이루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그 특징을 형식과 내용의 '분리'라고 설명하는 것은 글의 내용과 반대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마지막 문단에서 고전파 음악이 종교의 영역에서 음악 자체의 영역을 확보하고, 최고 수준의 음악적 내용과 형식을 수립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고전파 음악이 음악의 역사에서 이룬 성과를 제시하여 **음악사적 의의**를 밝히는 방식이다.

② O: 둘째 문단에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처럼 **대표적인 작곡가를 예시**하여 고전파 음악이 음악적 완숙을 이룬 시기라는 설명을 독자가 이해하도록 돕는다.

③ X: 첫째 문단에서는 고전파 음악이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했다고 하고, 둘째 문단에서는 '음악적 형식과 내용의 완숙'을 이루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형식과 내용의 분리'가 아니라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와 완숙**을 강조한다고 고쳐야 한다.

④ O: 글의 첫머리에 '고전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라는 질문을 제시한다. 이는 **질문으로 화제를 제시**하여 독자가 고전파 음악의 성격과 특징에 호기심을 갖게 하고, 이어지는 설명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방식이다.

NoteBase

문 17.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적절히 추론한 것은?

(가) 철학사에서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예컨대 플라톤은 감각이 보여 주는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적으로 불안정한 세계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경험론자들은 우리의 모든 관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는 없다고 결론짓는다.
(나) 모든 사람은 착시 현상 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감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모든 감각적 정보를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받아들이다가는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도 당연하다.

①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경험론적 사고에 토대를 둔다.
②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일상생활에서는 합리론적 사고를 우선하여야 한다.
③ 과학 연구는 합리론을 버리고 철저히 경험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분야에나 전적으로 차별 없이 요구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글쓴이는 실용적 기술 개발을 과학적 연구와 구별하며, 과학적 연구에서처럼 감각 자료를 엄격하게 경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를 모든 관념과 판단이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는 경험론과 연결하면, 실용적 기술 개발은 일차적으로 경험론적 사고에 토대를 둔다고 추론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에서 경험론은 모든 관념과 판단이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나)는 실용적 기술 개발과 일상적 행동을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과학적 연구와 구별한다. 따라서 실용적 기술 개발은 감각을 불신하는 태도보다 **감각 경험을 일차적 토대로 삼는 태도**에 가깝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감각이 언제나 정확하다거나 기술 개발에 검증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② X: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은 (가)에서 플라톤이 감각을 불신하는 이유로 제시된 내용이다. 그러나 (나)의 글쓴이는 모든 감각 정보를 검증한 뒤 받아들이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일상생활에서 **감각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본다. 일상생활에서는 합리론적 사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할 수 없다.

③ X: (나)는 과학적 연구가 상당한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어느 정도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험적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지, 합리론을 버리고 경험론만을 철저히 따르라는 뜻이 아니다. 과학적 연구에서는 감각 자료의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정확성을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고쳐 이해해야 한다.

④ X: (나)는 일상생활에서는 감각을 신뢰할 수 있지만, 과학적 연구에서는 더 높은 정확성을 위해 감각 자료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구별한다. 따라서 감각에 대한 신뢰가 모든 분야에서 전적으로 똑같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분야에서 요구하는 정확성에 따라 신뢰와 경계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믿기 어렵겠지만 자장면 문화와 미국의 피자 문화는 닮은 점이 많다. 젊은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닮은꼴이다. 이사한다고 짐을 내려놓게 되면 주방 기구들이 부족하게 되고 이때 자장면은 참으로 편리한 해결책이다. 미국에서의 피자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아이들의 친구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피자는 참으로 편리한 음식이다.

남자들이 군에 가 훈련을 받을 때 비라도 추적추적 오게 되면 자장면 생각이 제일 많이 난다고 한다. 비가 오는 바깥을 보며 따뜻한 방에서 입에 자장을 묻히는 장면은 정겨울 수밖에 없다. 프로 농구 원년에 수입된 미국 선수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자를 시켜 먹었다고 한다. 음식이 맞지 않는 탓도 있겠지만 향수를 달래고자 함이 아닐까?

싸게 먹을 수 있는 이국 음식이란 점에서 자장면과 피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외식을 하기엔 부담되고 한번쯤 식단을 바꾸어 보고 싶을 즈음이면 중국식 자장면이나 이탈리아식 피자는 한국이나 미국의 서민에겐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피자 배달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피자를 간식이 아닌 주식으로 삼고자 하는 아이들도 생겼다. 졸업식을 마치고 중국집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이 이제 피자집으로 돌려졌다. 피자보다 자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① 피자는 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음식이다.

② 자장면과 피자는 이국적인 음식이다.

③ 자장면과 피자는 값이 싸면서도 기분 전환이 되는 음식이다.

④ 자장면은 특별한 날에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은 마지막 문단의 변화와 어긋난다. 졸업식 뒤에 중국집 대신 피자집을 찾고 자장면보다 피자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으므로, **어린이들의 선호가 피자 쪽으로 바뀌었다**고 보아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첫 문단에서는 자장면과 피자가 모두 오토바이로 배달된다는 공통점을 제시한다. 또 아이들의 친구들이 갑자기 많이 찾아왔을 때 피자가 편리하다고 하므로, **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음식**이라는 설명과 일치한다.

② O: 셋째 문단에서 자장면과 피자를 '싸게 먹을 수 있는 이국 음식'이라고 직접 설명한다. 중국식 자장면은 한국의 서민에게, 이탈리아식 피자는 미국의 서민에게 **다른 나라의 음식**이라는 맥락이다.

③ O: 셋째 문단에서는 외식 비용이 부담되면서도 식단을 바꾸고 싶을 때 자장면이나 피자가 알맞다고 한다. 두 음식은 **적은 비용으로 식단에 변화를 주는** 음식이므로, 값이 싸면서 기분 전환도 된다는 설명을 뒷받침한다.

④ X: 마지막 문단에서는 졸업식 뒤에 중국집으로 가던 발걸음이 이제 피자집으로 향하고, 피자보다 자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기 힘들어졌다고 한다. 이는 자장면에 대한 선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선호가 자장면에서 피자로 옮겨 갔다**는 뜻이다. 따라서 특별한 날에도 자장면이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다는 설명은 글의 내용과 어긋난다.

NoteBase

문 19.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개념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의어는 서로 경쟁을 통해 하나가 없어지거나 각기 다른 의미 영역을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현실 언어에서 동의어로 공존하면서 경쟁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쪽은 살아남고 다른 쪽은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동의 충돌의 결과 의미 영역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의미 교체 등으로 구분된다.

① '가을걷이'와 '추수'는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다.

② '말미'는 쓰지 않고 '휴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③ '얼굴'은 '형체'의 뜻에서 '안면'의 뜻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④ '겨레'는 '친척'의 뜻에서 '민족'의 뜻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말미'는 **소멸한 말이 아니라**, 일에 매인 사람이 다른 일을 위해 얻는 겨를을 뜻하는 말로 지금도 쓰인다. 따라서 '말미는 쓰지 않고 휴가만 사용한다'는 설명은 실제 언어 사용과 맞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을걷이'와 '추수'는 모두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는 일을 가리킨다.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어느 한쪽도 소멸하지 않고 **함께 쓰이는** 사례이므로, 동의어가 공존하며 경쟁한다는 설명에 부합한다.

② X: '말미'는 직업이나 일에 매인 사람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얻는 겨를을 뜻한다. '말미를 얻다', '말미를 주다'처럼 지금도 사용되며, 일정한 기간 쉬는 일을 뜻하는 '휴가'와 의미가 비슷하다. 따라서 '말미는 쓰지 않는다'를 **'말미와 휴가는 모두 쓰인다'**로 고쳐야 한다. 한 단어가 다른 단어에 밀려 소멸한 사례로 볼 수 없다.

③ O: '얼굴'은 과거에 사람의 형체나 모습 전반을 가리켰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눈·코·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인 '안면'을 가리킨다. 넓게 가리키던 대상이 그 일부로 한정되었으므로 **의미 축소**의 사례이다.

④ O: '겨레'는 본래 친척을 뜻했으나,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민족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가까운 친족 집단에서 더 큰 민족 집단으로 가리키는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의미 확대**의 사례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20세기 들어서 생태학자들은 지속성 농약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해충 구제용으로 널리 사용됨으로써 농업 생산량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한 디디티(DDT)는 유기 염소계 살충제의 대명사이다.
(나) 그렇지만 이 유기 염소계 살충제는 물에 잘 녹지 않고 자연에서 햇빛에 의한 광분해나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분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디디티는 토양이나 물속의 퇴적물 속에 수십 년간 축적된다. 게다가 디디티는 지방에는 잘 녹아서 먹이사슬을 거치는 동안 지방 함량이 높은 동물 체내에 그 농도가 높아진다. 이렇듯 많은 양의 유기 염소계 살충제를 체내에 축적하게 된 맹금류는 물질대사에 장애를 일으켜서 껍질이 매우 얇은 알을 낳기 때문에, 포란 중 대부분의 알이 깨져 버려 멸종의 길을 걷게 된다.
(다) 디디티는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뿌려진 디디티는 물과 공기, 생물체 등을 매개로 세계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다. 그래서 디디티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알래스카 지방의 에스키모 산모의 젖에서도 디디티가 검출되었고, 남극 지방의 펭귄 몸속에서도 디디티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생물 농축과 잔존성의 특성이 밝혀짐으로써 미국에서는 1972년부터 디디티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유기 염소계 농약의 사용이 대부분 금지되었다.
(라) 이와 같이 디디티의 생물 농축 현상에서처럼 생태학자들은 한 생물 종에 미치는 오염의 영향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전체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래서인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소한 환경오염 행위가 장차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가)는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핵심어를 제시함으로써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② (나)는 디디티가 끼칠 생태계의 영향을 인과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다)는 디디티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그것의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④ (라)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다)는 디디티의 확산과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그 특성이 밝혀져 **생산이 중단되고 사용이 금지된 사실**을 제시한다. 필자가 디디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단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지속성 농약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 화제로 소개하고, 그 사례로 디디티를 제시한다. '지속성 농약', '악영향', '디디티'라는 **핵심어로 뒤에 설명할 내용**을 암시한다.

② O: 인과 분석은 어떤 현상의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를 연결하여 설명하는 방법이다. (나)는 디디티가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래 축적되고, 지방에 잘 녹아 먹이사슬을 거치며 동물 체내의 농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이어 맹금류의 체내 축적이 물질대사 장애와 얇은 알껍질로 이어지고, 포란 중 알이 깨져 멸종에 이르는 **원인과 결과의 연쇄**를 보여 준다.

③ X: (다)는 디디티가 쉽게 분해되지 않아 세계 전역으로 퍼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알래스카 산모의 젖과 남극 펭귄의 몸속에서도 검출되었다는 사례를 제시한다. 이어 생물 농축과 잔존성의 특성이 밝혀진 결과, 미국에서 1972년부터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고 1980년대에는 유기 염소계 농약의 사용이 대부분 금지되었다고 서술한다. 이는 **이미 이루어진 조치를 설명**한 것이므로,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생산 중단과 사용 금지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라)는 한 생물 종에 누적된 오염의 영향이 전체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사소한 환경오염 행위'가 장차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표현은 **작은 오염도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부각한다. 환경오염을 경계하라고 직접 촉구하지 않으면서도, 그 위험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여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NoteBase